

행안부, 지역사랑상품권, 상반기 1500억 신속집행...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

상품권 할인비용 예산 상반기 1500억원 신속집행
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2월 한 달 동안 상품권 할인을 상향 시 국
비 2%p 지원

권국홍 기자 (tpkikwon@ajunews.com) | 입력 : 2024-01-28 04:03
1. 수정 : 2024-01-28 04:03



새로 문을 여는 마트도 붐볐다. 한가로워 보이고 있다. (사진: 연합뉴스)
행정안전부는 고령화, 고령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
정 상반기 신속집행 발령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
다고 28일 밝혔다.

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%에 해당하는
1500억 원(월 300억원)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, 하반기에는 1000억 원(월 167억원)
을 집행한다.

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
작곡적인 지원을 추진하는데, 2월 한 달간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%
에서 최대 15%로 상향할 수 있다.

또한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%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
주기 위해, 국비지원율 2월분율 2%p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은 5%→7%로, 일반자치단체
는 2%→4%로 올린다. 아울러 달로 월 7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한 구매한도도 월 100만
원까지 상향 가능하다.

2월 '지역사랑상품권' 혜택 확대...한도 100만원·할인율 15%로 상향

2024.01.28 21:12

박은희 기자

설 명절이 있는 다음달 한 달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평소보다 5%가량 확대된다. 구입한도도
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.

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한 달 동안 전국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%에서 최대 15%
로 상향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.

행안부는 할인율 상승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, 국비지원 (27) (43) (35) 로도용지 버리지
율 2월분율 2%포인트 늘린다.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5%→7%로, (8) (44) (9) 매라! 98% 모...
일반자치단체는 2%→4%로 지원율이 올라간다.

행안부는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
00억원 중 60%에 해당하는 1500억원(월 300억원)을 상반기에 신속히
집행하고, 하반기에는 1000억원(월 167억원)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
다. 월 구매 한도도 월 1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해진다.



한국로또 당첨
엄청났다..."



로또 연속당첨자
7명째.. "용지..."

<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혜택 확대>